

건설근로자공제회, 「건설현장 리포트」 발간

-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구조와 실태를 퇴직공제 데이터를 통해 조명 -

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김상인, 이하 ‘공제회’)는 「건설현장 리포트」를 발간했다고 20일(화) 밝혔다.

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,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.

2024년 기준,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.7%를 차지했다.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.7%로 가장 많았고,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,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. 체류자격은 F-4(재외동포)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, F-5(영주), H-2(방문취업)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.

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.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,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%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·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.

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“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”라며 “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바탕으로,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흐름을 정밀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”라고 밝혔다.

「건설현장 리포트」는 공제회 홍보센터(cwma.bigzine.kr)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.

담당 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	책임자	센터장	장성엽 (02-519-2440)
		담당자	차 장	강승복 (02-519-2442)